미국의 아시아인들

(출처: 2004 년 12 월에 발간된 2000 년 인구조사 특별 보고서)

조사 자료:

표 1. 세부 집단별 아시아인 인구 (%)
표 2. 세부 집단별 아시아인 인구
표 3. 대상 연령층 및 중간연령
표 4. 세대 유형 및 평균 세대 규모
표 5. 이주 연도별 해외 출생자
표 6. 학력
표 7. 직업
표 8. 성별 중간소득
표 9. 중간가계소득
표 10. 주택 보유 현황

아시아인 인구는 동질적이지 않다. 아시아인 인구에는 언어, 문화, 미국 거주 기간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다수의 집단들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인과 일본인 같은 일부 아시아인 집단들은 몇 세대에 걸쳐 미국에서 대표성이 확보되어 왔다.
몽족, 베트남인, 라오스인, 캄보디아인 같은 아시아인 집단들은 비교적 최근의 이민자들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체 미국 인구의 4.2퍼센트인 1천1백9십만 명이 자신이 아시아인이라고 밝혔다. 이 수치에는 3.6퍼센트를 차지하는 아시아인에만 해당된다고 답한 1천2십만 명과 아시아인과 적어도 다른 한 인종이라고 답한 0.6퍼센트의 1백7십만 명이 포함된다.

아시아인은 원래의 극동, 동남아시아, 혹은 인도 아대륙(亞大陸) 사람들을 기원으로 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아시아인 집단들은 비단 국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몽족과 같은 민족적인 용어들도 포함한다.

본 보고서의 분석은 아래에 열거된 11개 아시아인 집단들과 나머지 범주인 기타 아시아인에 관한 것이다. 이 집단 중 4개 집단은 각각 전체 아시아인 인구의 적어도 1퍼센트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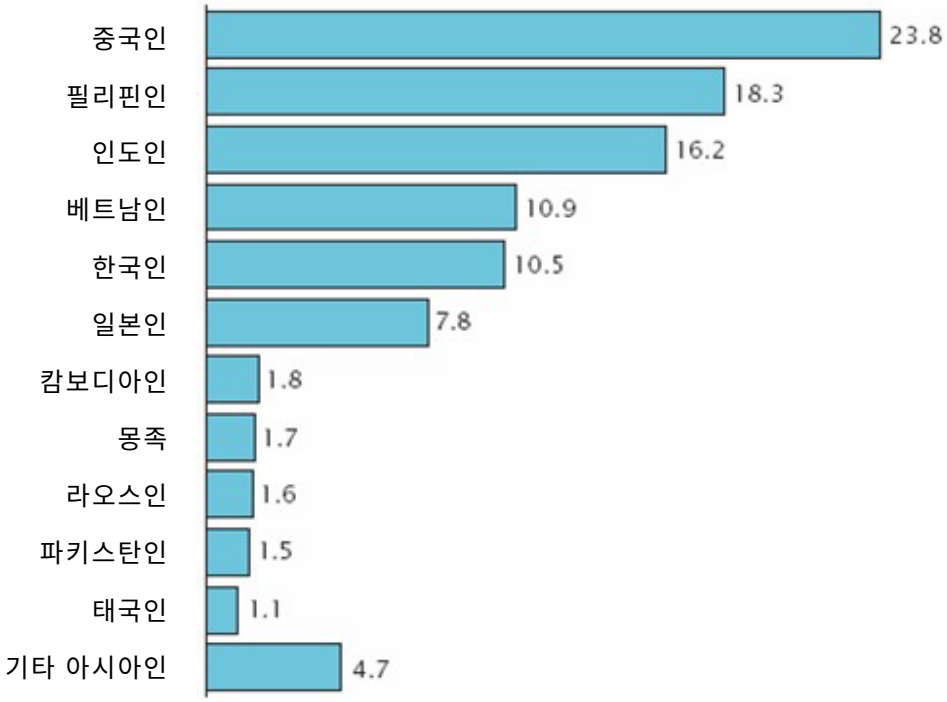
“인도인 – 한국인 – 캄보디아인 – 라오스인 – 중국인 – 파키스탄인 – 필리핀인 – 태국인 – 몽족 – 베트남인 – 일본인”

표 1. 세부 집단별 아시아인 인구 (%)

다섯 개 세부 아시아인 집단이 인구1백만 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1천만 아시아인 중에서 인도인, 중국인, 필리핀인, 한국인, 베트남인의 5개 집단이 1백만 명 이상이었다. 이들 집단을 모두 합하면 아시아인 인구의 약 80퍼센트를 차지하였다. 중국인은 최대 집단으로서 아시아인 인구의 약 24퍼센트를 점유하였고, 그 다음은 필리핀인, 인도인, 베트남인, 한국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인, 캄보디아인, 몽족, 라오스인, 파키스탄인, 태국인의 다른 6개 세부 집단이 함께 아시아인 인구의 약 15퍼센트를 차지하였다. (기타 아시아인 범주의) 나머지 아시아인 집단들은 아시아인 인구의 약 5퍼센트를 차지하였다.

(백분율 분포. 표본에 근거한 자료. 비밀 보장, 표집오차, 비표집오차, 정의에 대한 정보는 www.census.gov/prod/cen2000/doc/sf4.pdf 참조)



출처: 미국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 2000 년 인구조사 특별 제표

표 2. 세부 집단별 아시아인 인구

(표본에 근거한 자료. 비밀 보장, 표집오차, 비표집오차, 정의에 대한 정보는 www.census.gov/prod/cen2000/doc/sf4.pdf 참조)

세부 집단	세부 아시아인 집단에만 속하는 경우		세부 아시아인 집단에만 속하거나 조합인 경우	
	숫자	미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숫자	미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총계	**[1]10,171,820**	**3.61**	**[2]11,859,446**	**4.21**
인도인	1,645,510	0.58	1,855,590	0.66
캄보디아인	178,043	0.06	212,633	0.08
중국인	2,422,970	0.86	2,858,291	1.02
필리핀인	1,864,120	0.66	2,385,216	0.85
몽족	170,049	0.06	184,842	0.07
일본인	795,051	0.28	1,152,324	0.41
한국인	1,072,682	0.38	1,226,825	0.44
라오스인	167,792	0.06	196,893	0.07
파키스탄인	155,909	0.06	209,273	0.07
태국인	110,851	0.04	150,093	0.05
베트남인	1,110,207	0.39	1,212,465	0.43
기타 아시아인	[3]478,636	0.17	[4]561,485	0.20

[1]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세부 아시아인 집단이라 답했는가 여부를 막론하고 아시아인에만 해당된다고 밝힌 사람들이 포함된다.

[2] 하나의 세부 아시아인 집단으로만 답한 사람들, 둘 이상의 세부 아시아인 집단으로 답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 이상의 비아시아인 인종이라 밝힌 사람들이 포함된다. 한국인과 필리핀인처럼 둘 이상의 세부 아시아인 집단들에 속한다고 밝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 범주에 한 차례씩 집계되지만 총계에서는 단 한 차례만 집계되므로 총계는 해당 열의 총합보다 수치가 작다. 위에서 열거되지 않은 둘 이상의 세부 아시아인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밝힌 사람들(예컨대 인도네시아인과 말레이시아인)은 "기타 아시아인" 범주에 한 차례 집계되었다.

[3] 인구조사 설문지에서 "기타 아시아인"이라는 응답 범주에만 표시했거나 "아시안(Asian) 또는 아시아틱(Asiatic)"같은 총칭적 용어로 기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위에서 열거되지 않은 하나의 아시아인 집단으로 밝힌 사람들과 둘 이상의 아시아인 집단이라 밝힌(그리고 다른 인종은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4] 위에서 열거된 집단들을 제외하고 하나 이상의 아시아인 집단이라 답한 사람들의 수를 나타낸다. 총계 561,466 명에는 위에서 열거되지 않은 아시아인 집단이라 밝힌 254,817 명(예컨대 방글라데시), 위에서 열거되지 않은 둘 이상의 아시아인 집단이라 밝힌 32,308 명(예컨대 인도네시아인과 말레이시아인), 위에서 열거되지 않은 아시아인 집단과 하나 이상의 비아시아인 인종이라 밝힌 261,237 명(예컨대 네팔인과 백인), 그리고 위에서 열거되지 않은 둘 이상의 아시아인 집단과 하나 이상의 비아시아인 인종이라 답한 13,123 명(예컨대 인도네시아인과 스리랑카인과 흑인)이 포함된다.

출처: 미국인구조사국, 2000 년 인구조사 특별 제표

표 3. 대상 연령층 및 중간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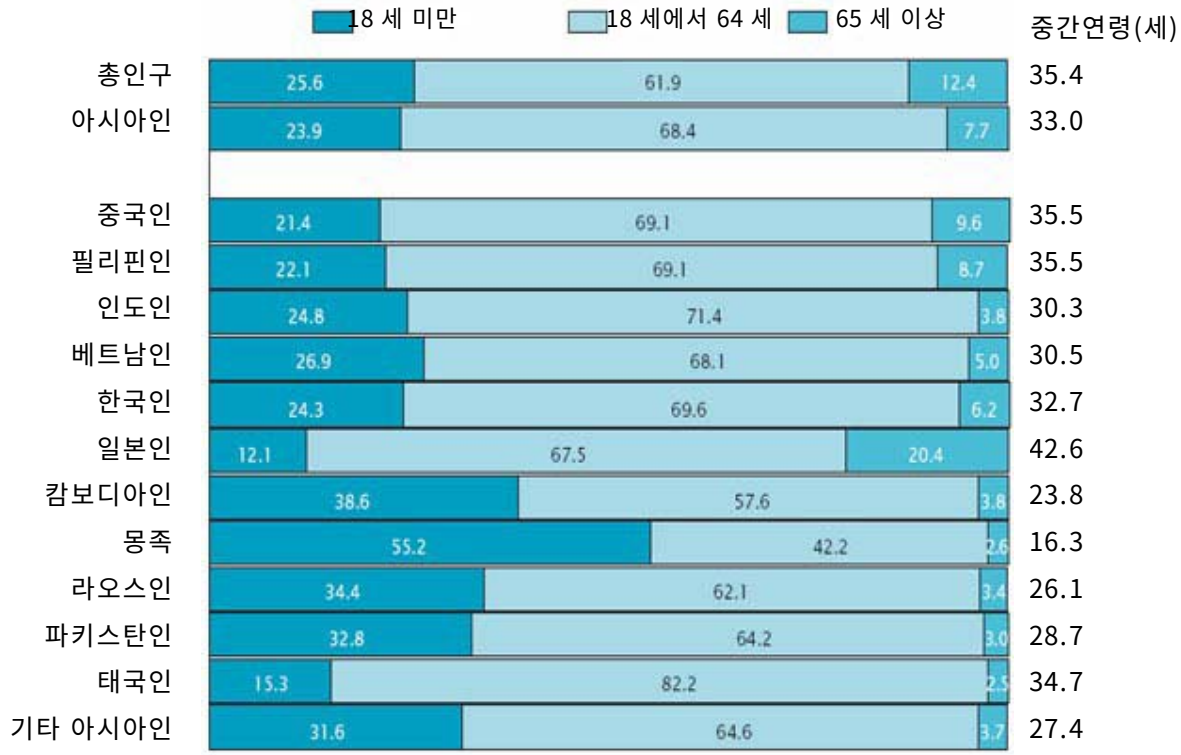
아시아인은 전체 인구보다 중간연령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시아인은 2000년에 중간연령이 33세로 국가 중간연령인 35세보다 2살이 낮았다. 단연 일본인이 중간연령이 거의 43세로 세부 아시아인 집단 중 가장 나이가 많았고, 몽족이 중간연령 16세로 가장 어린 것으로 나타났다.

. 세부 아시아인 집단 중 몽족의 55퍼센트, 일본인과 태국인 인구의 16퍼센트 미만이 18세 미만이었다. 태국인의 80퍼센트 이상이 18세에서 64세 사이인 반면, 몽족의 경우는 42퍼센트로 나타났다.

. 아시아인의 약 8퍼센트가 65세 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총 인구의 경우 12퍼센트였다. 중국인, 필리핀인, 일본인을 제외한 각 세부 아시아인 집단에서 인구의 8퍼센트 미만이 65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일본인은 20퍼센트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백분율 분포. 표본에 근거한 자료. 비밀 보장, 표집오차, 비표집오차, 정의에 대한 정보는 www.census.gov/prod/cen2000/doc/sf4.pdf 참조)



출처: 미국인구조사국, 2000 년 인구조사 특별 제표

표 4. 세대 유형 및 평균 세대 규모

아시아인은 전체 인구보다 기혼 커플의 세대를 이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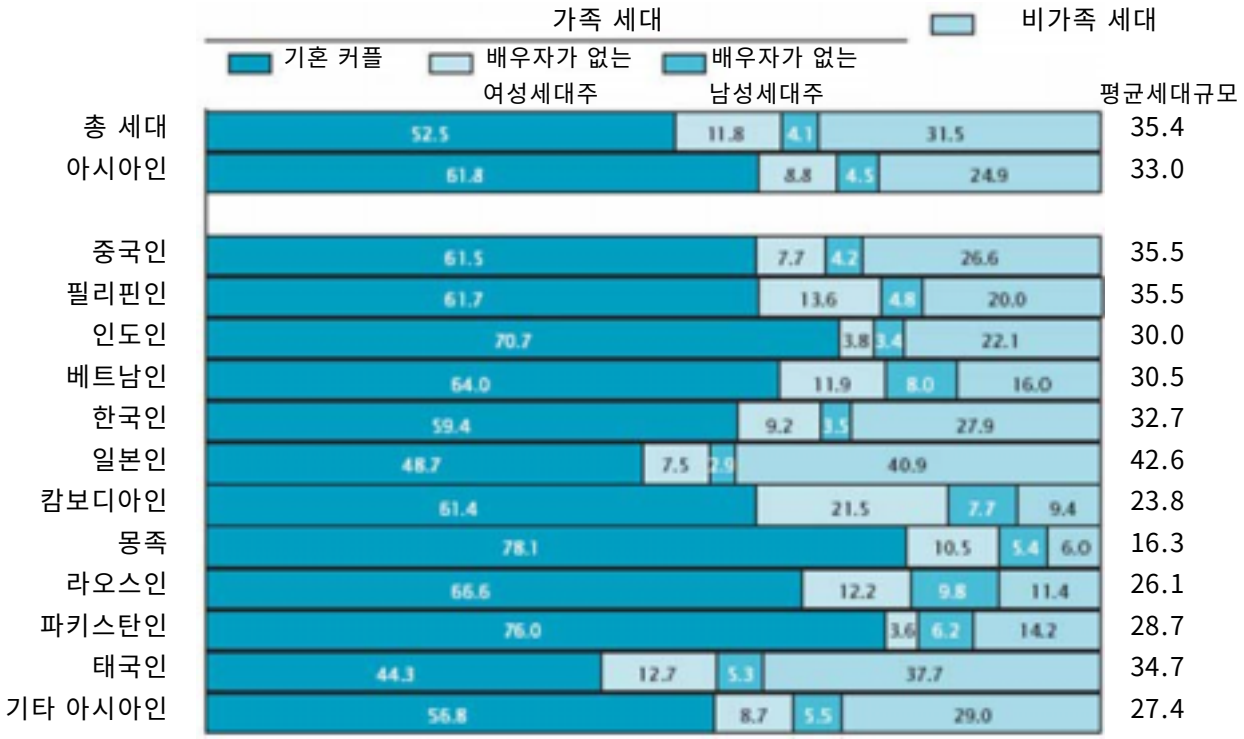
. 2000년에는 아시아인 세대의 60퍼센트 이상이 기혼 커플이 이루는 세대인 반면, 전체 인구의 경우 전체 세대의 53퍼센트로 나타났다. 인도인, 몽족, 파키스탄인 세대의 70퍼센트 이상이 기혼 커플 세대였다.

. 모든 세부 아시아인 집단 중 인도인과 파키스탄인이 남편이 없는 여성 세대주의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각각 3.8퍼센트와 3.6퍼센트) 캄보디아인이 비율이 가장 높았다(21퍼센트).

. 2000년에 평균 아시아인 세대는 구성원 수가 약 3명이었다.

. 비가족 세대 비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일본인이었다(41퍼센트).

(세대의 백분율 분포. 세대는 세대주의 인종 별로 분류되어 있다. 표본에 근거한 자료. 비밀 보장, 표집오차, 비표집오차, 정의에 대한 정보는 www.census.gov/prod/cen2000/doc/sf4.pdf 참조)



출처: 미국인구조사국, 2000 년 인구조사 특별 제표

표 5. 이주 연도별 해외 출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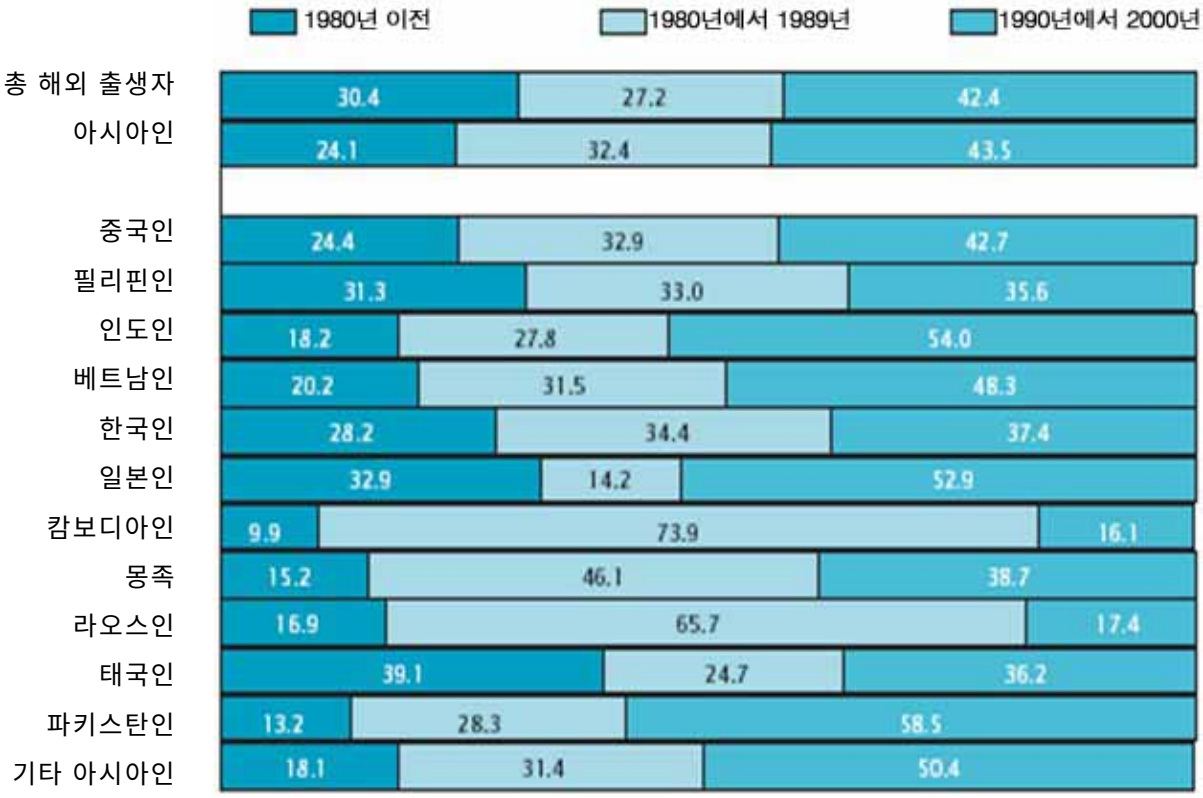
2000년에 해외 출생 아시아인 인구의 과반수 이상이 과거 20년 동안 미국으로 이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해외출생 인구(70퍼센트)보다 높은 비율(76퍼센트)의 해외 출생 아시아인 인구가 과거 20년 간 미국으로 이주했다. 해외 출생 아시아인의 43퍼센트가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이주해 왔다.

. 세부 아시아인 집단 중 해외 출생 캄보디아인, 파키스탄인, 몽족의 85퍼센트 이상이 과거 20년 동안 미국으로 이주해 왔다. 반면 해외 출생 태국인의 거의 40퍼센트는 1980년 이전에 미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해외 출생 아시아인들의 1.5배의 비율을 보였다.

. 세부 아시아인 집단 중 해외 출생 인도인, 일본인, 파키스탄인의 50퍼센트 이상이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미국으로 건너왔다.

(백분율 분포. 표본에 근거한 자료. 비밀 보장, 표집오차, 비표집오차, 정의에 대한 정보는 www.census.gov/prod/cen2000/doc/sf4.pdf 참조)



출처: 미국인구조사국, 2000 년 인구조사 특별 제표

표 6.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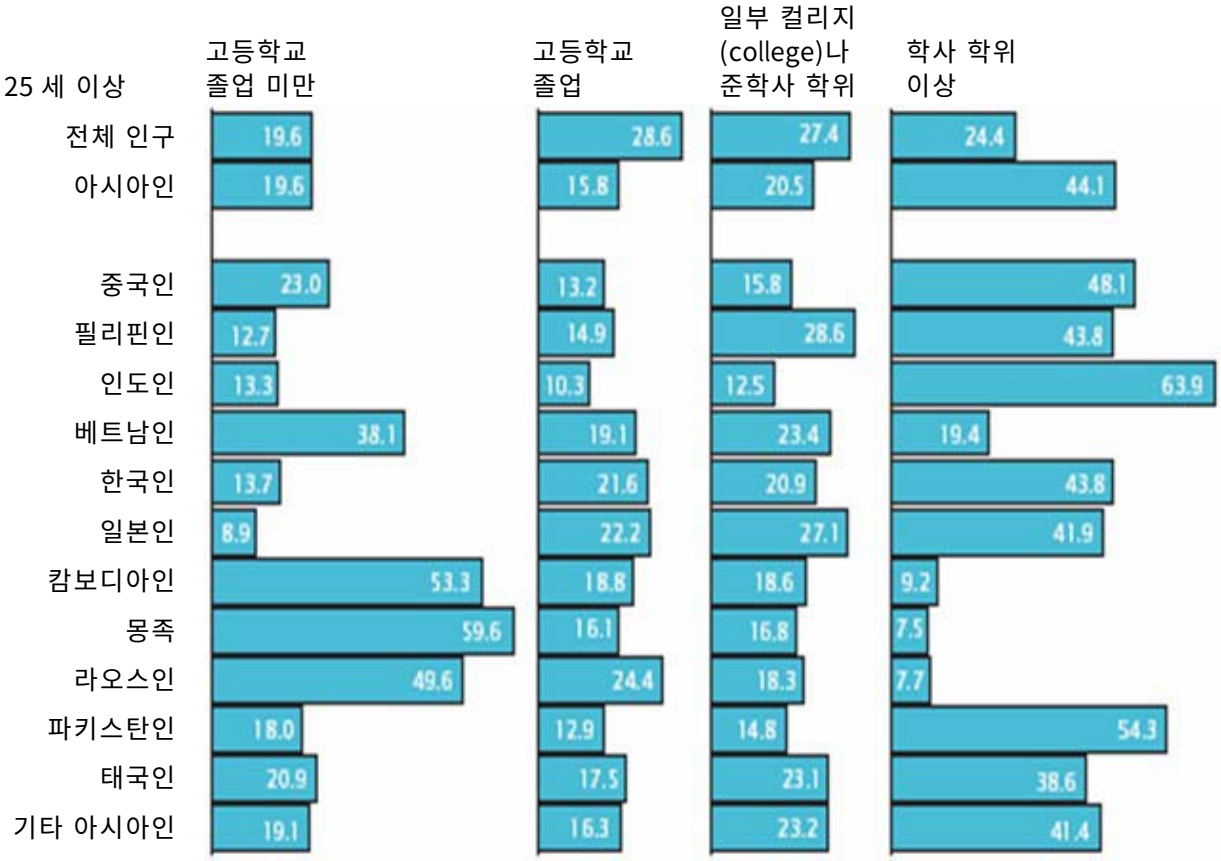
아시아인의 약 80퍼센트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0년에 25세 이상의 미국의 모든 아시아인과 모든 미국 인구 공히 대략 80퍼센트 정도가 적어도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인구(24퍼센트)보다 높은 비율의 아시아인(44퍼센트)이 적어도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다.

. 인도인의 학사 학위 보유자 비율이 64퍼센트로 가장 높았고, 몽족이 60퍼센트로 나타났으며, 캄보디아인과 라오스인의 약 절반은 고등학교 학력 미만으로 나타났다.

. 일본인은 최소한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91퍼센트).

(25 세 이상 인구의 백분율 분포. 표본에 근거한 자료. 비밀 보장, 표집오차, 비표집오차, 정의에 대한 정보는 www.census.gov/prod/cen2000/doc/sf4.pdf 참조)



출처: 미국인구조사국, 2000 년 인구조사 특별 제표

표 7.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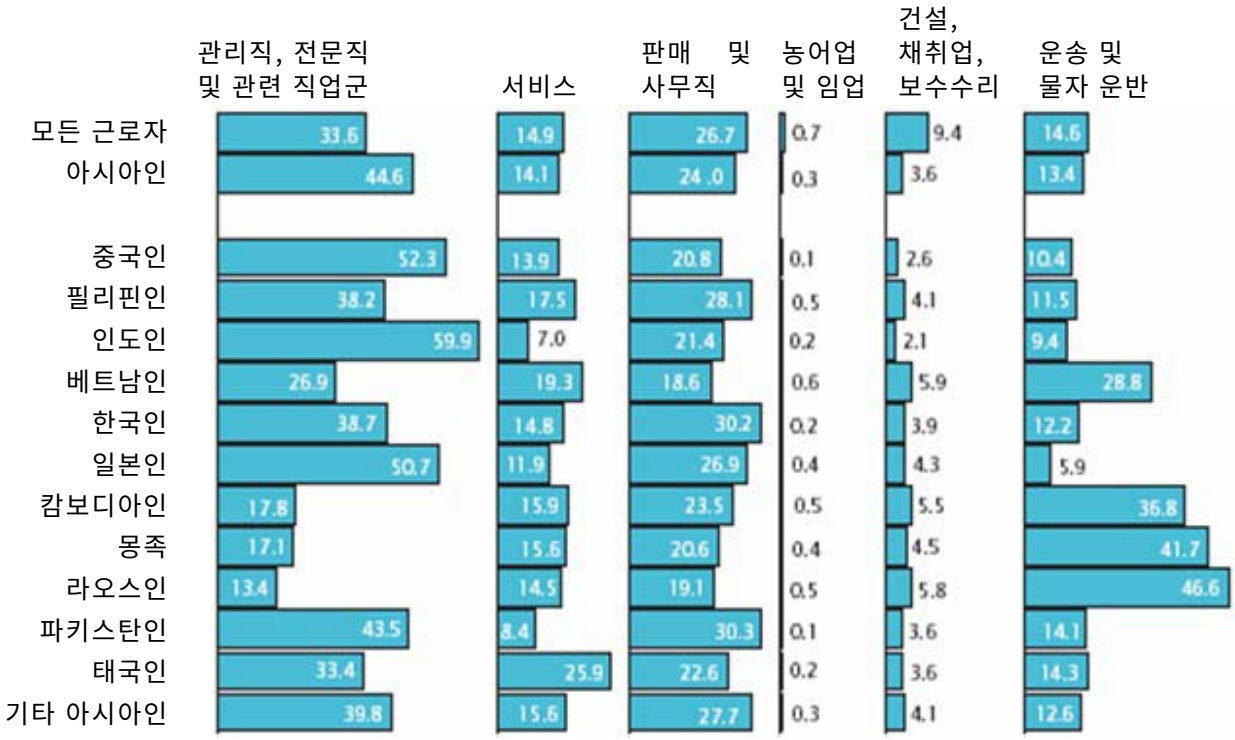
아시아인은 전체 인구보다 관리직, 전문직 및 관련 직업군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시아인의 약 45퍼센트가 관리직, 전문직 및 관련 직업군에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체 인구는 34퍼센트가 이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이들 직업군에 고용되어 있는 비율은 라오스인이 13퍼센트에서 인도인의 경우 60퍼센트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 캄보디아인, 몽족, 라오스인의 20퍼센트 미만이 관리직, 전문직 및 관련 직업군에 고용되어 있었던 반면, 35퍼센트 이상이 생산, 운송, 물자 운반 직업군에 고용되어 있었다.

. 모든 태국인의 26퍼센트가 서비스 직업군에 고용되어 있는 반면, 인도인, 중국인, 일본인, 파키스탄인의 경우 15퍼센트 미만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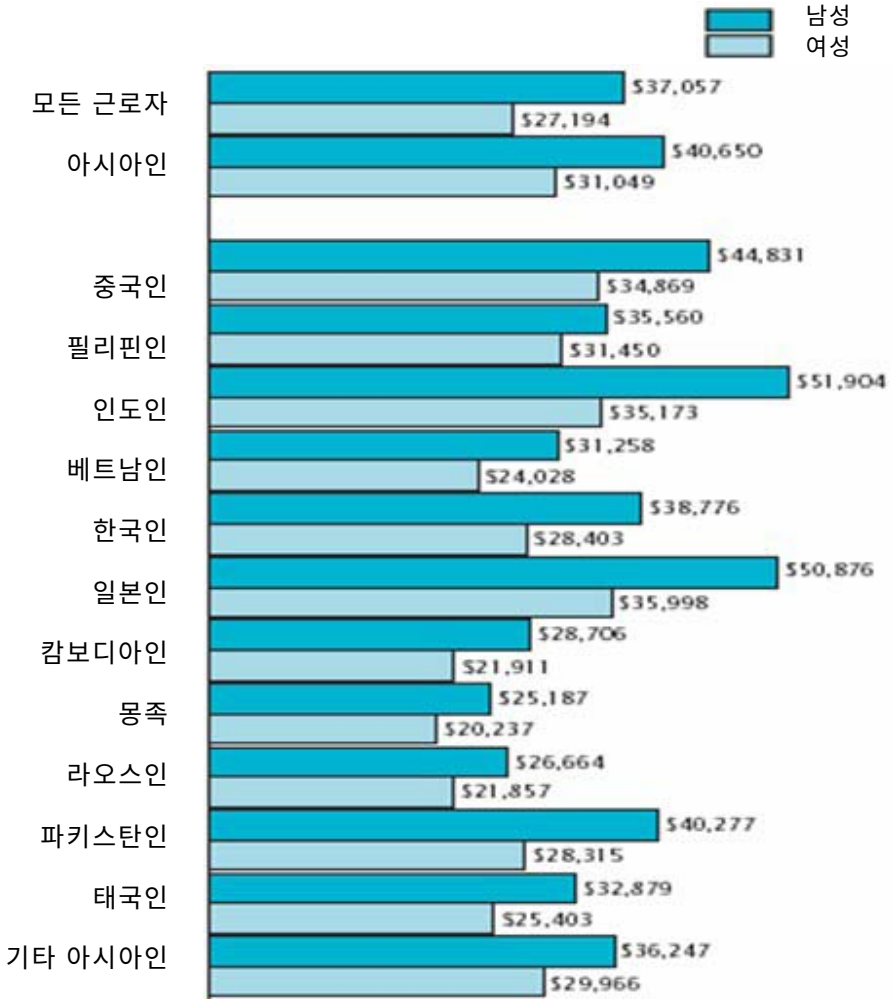
(16 세 이상 피고용 민간인 인구 백분율 분포. 표본에 근거한 자료. 비밀 보장, 표집오차, 비표집오차, 정의에 대한 정보는 www.census.gov/prod/cen2000/doc/sf4.pdf 참조)



출처: 미국인구조사국, 2000 년 인구조사 특별 제표

표 8. 성별 중간소득

(16 세 이상 연중 상근직 피고용 근로자. 표본에 근거한 자료. 비밀 보장, 표집오차, 비표집오차, 정의에 대한 정보는 www.census.gov/prod/cen2000/doc/sf4.pdf 참조)



연중 상근으로 일하는 아시아인 남성이 전체 남성과 여성보다 중간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999년에 연중 상근직 근로자 중 아시아인 남성의 중간소득은 전체 남성의 중간소득보다 9퍼센트 높았으며 아시아인 여성의 중간소득은 전체 여성의 중간소득보다 14퍼센트가 높았다.
. 평균적으로 연중 상근으로 일하는 아시아인 여성은 동 연도에 같은 조건으로 일한 남성이 벌어들인 100달러 당 76달러의 소득을 올렸다.

출처: 미국인구조사국, 2000 년 인구조사 특별 제표

. 인도인, 일본인, 중국인은 아시아인 남성과 전체 남성보다 중간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중 상근직으로 일하는 인도인 남성이 중간소득이 가장 높았고($51,900) 일본인이 $50,900의 소득으로 그 뒤를 따랐다. 몽족과 라오스인의 중간소득이 연중 상근직 아시아인 남성 근로자 중 가장 낮았다.
. 일본인, 인도인, 중국인 여성은 전체 세부 아시아인 여성 집단 중 중간소득이 가장 높았고 전체 아시아인 여성보다 중간소득이 높았다. 이들은 전체 여성보다 매년 $4,300에서 $8,800를 더 벌어들이기도 하였다.

표 9. 중간가계소득

아시아인 가정의 중간 연 가계소득은 전체 가정의 중간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시아인 가정의 중간가계소득은 전체 가정의 중간치와 비교하여 $9,000가 높았다($59,000와 $50,000).
. 인도인 가정과 일본인 가정의 중간가계소득은 전체 아시아인 가정보다 $10,000 이상 높았다.

. 캄보디아인, 몽족, 한국인, 라오스인, 파키스탄인, 태국인, 베트남인의 중간가계소득은 전체 아시아인 가정의 중간치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몽족과 캄보디아인 가정의 중간가계소득은 전체 아시아인 집단 중 최저였다(각각 $32,400와 $35,600).

(세대주의 인종으로 분류한 가정. 표본에 근거한 자료. 비밀 보장, 표집오차, 비표집오차, 정의에 대한 정보는 www.census.gov/prod/cen2000/doc/sf4.pdf 참조)

출처: 미국인구조사국, 2000 년 인구조사 특별 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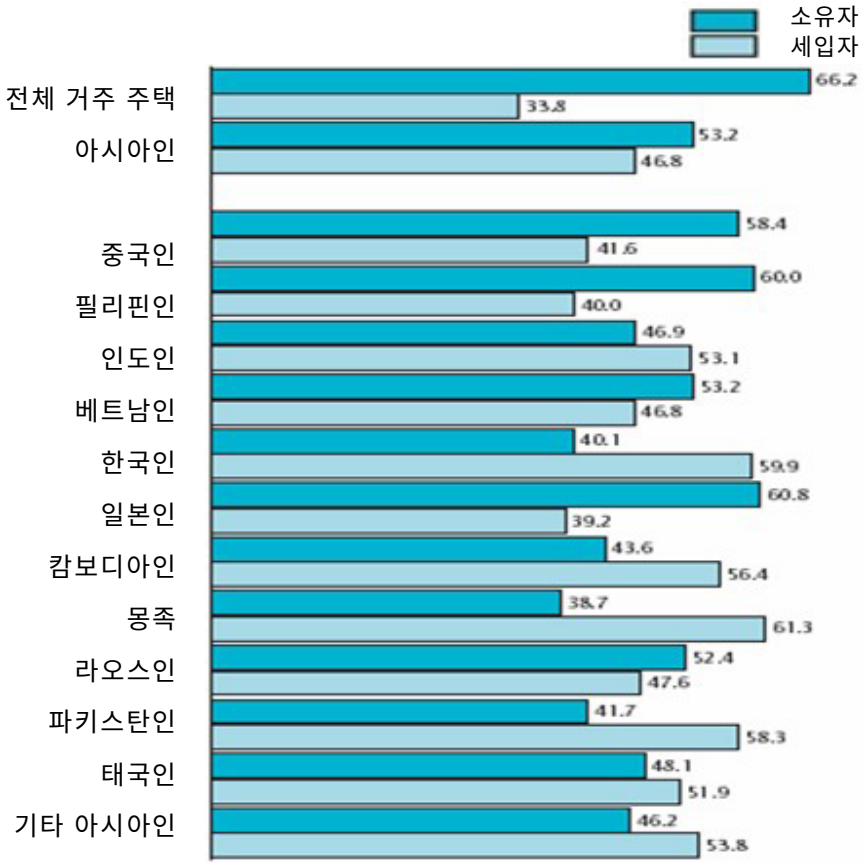
표 10. 주택 보유 현황

아시아인의 주택 보유율이 전체 미국 인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00년에 아시아인 거주 주택 중 거주자 소유인 주택은 53퍼센트를 약간 넘는 반면, 전체 거주 주택의 경우는 66퍼센트였다.
. 일본인, 필리핀인, 중국인은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비율이 가장 높았다(각각 61퍼센트, 60퍼센트, 58퍼센트).

. 중국인, 필리핀인, 일본인, 라오스인, 베트남인 세대주의 과반수 이상은 자신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머지 세부 아시아인 집단의 세대주들은 과반수 이상이 세입자였다. 몽족, 한국인, 파키스탄인, 캄보디아인은 세입자 거주 주택 비율이 가장 높았다.

(거주 주택의 백분율 분포. 세부 집단의 주택 보유현황이 세대주의 인종별로 나타나 있다. 표본에 근거한 자료. 비밀 보장, 표집오차, 비표집오차, 정의에 대한 정보는 www.census.gov/prod/cen2000/doc/sf4.pdf 참조)



출처: 미국인구조사국, 2000 년 인구조사 특별 제표